

# 광주시청 앞 '숲·물·빛의 녹색 광장'으로

市, 나무 4만여 그루 심고 벽천·LED조명  
시민 휴식처·관광 명소로 ... 오늘부터 개방

차도 중간에 멋진 화강암 광장이 나무와 물, 벽천(壁泉) 등이 조화를 이룬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어른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형 공원으로 조성된 상무지구 미관광장이 2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산림청 주관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 숲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녹색자금 19억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8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 동안 후박나무 등 4만723그루의 나무를 심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과 자연석 벽천을 설치해 최근 공사를 마쳤다.

미관광장은 입석대를 형상화한 자연석 벽천(최고 높이 8m 폭 31m)에서 20마력 모터 4대에 의해 시간당 800t의 물이 흘러내리고, 이는 다시 420m 연장의 시냇물이 돼 숲과 지하정원(sunken garden) 및 잔디광장 등을 감싸고 도는 구조를 띠고 있다. 광주 도심의 모습을 미관광장에 축소해 놓은 것이다.

또 광장에서 사용되는 물은 주변 현대해상화재보험 건물 내 지하수를 하루 600t씩 무료로 사용하기로 해 연간 2억원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차도의 1차선을 줄여 미관광장의 폭을 넓혀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야간경관에도 신경을 썼다. 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무를 아래에서 위로 밝히는 빛이나 산책로를 유도하는 빛, 지면 자체를 밝히는 빛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명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물길과 벽천에는 LED조명이 설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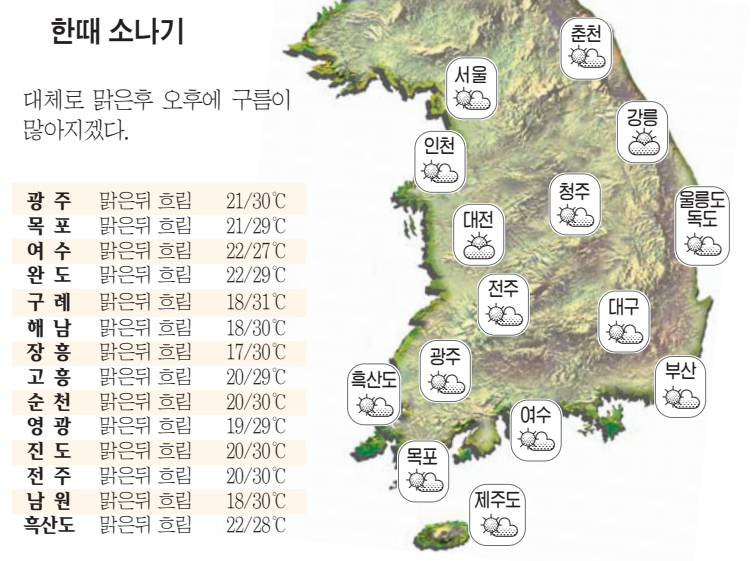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미관광장은 그동안 화강암과 콘크리트라는 구시대적 재료로 단순히 공간만 차지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히 적었다"며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생태·환경·교통 등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며, 앞으로 광주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이 2년여의 공사 끝에 나무와 물, 빛이 조화를 이룬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야간조명을 밝힌 광장(왼쪽)과 입석대를 형상화한 벽천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유치원생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9분 해질 19시 09분 달뜨기 11시 10분 달지기 21시 40분



지역	기온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광주	맑은뒤 흐림 21/30℃				
목포	맑은뒤 흐림 21/29℃				
여수	맑은뒤 흐림 22/27℃				
원주	맑은뒤 흐림 22/29℃				
구례	맑은뒤 흐림 18/31℃				
장흥	맑은뒤 흐림 18/30℃				
고흥	맑은뒤 흐림 17/30℃				
순천	맑은뒤 흐림 20/29℃				
영광	맑은뒤 흐림 20/30℃				
진도	맑은뒤 흐림 20/30℃				
전주	맑은뒤 흐림 20/30℃				
남원	맑은뒤 흐림 18/30℃				
목성도	맑은뒤 흐림 22/28℃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남여공학 학부 605-1114 / 대학원 605-1115

## 광주 충장로 4~5가 "산뜻해졌네"

특화거리 사업 완료

광주시 동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충장로 4~5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됐다.

동구는 지난 5월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충장로 4~5가 600m 구간의 낡은 도로와 가로등 교체 작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동구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상인의 관심이 높아 거리에 자발적으로 화분을 내놓고 상권 제해요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차차, 거리주차차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07년 시작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3년 만에 1~5가까지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됐다.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연



광주시 충장로 4~5가가 100여일간의 공사 끝에 세단장 했다. 동구는 낡은 아스팔트를 걷어낸 뒤 전통창살문양이 새겨진 화강암 바닥으로 교체했다. /나영주기자 mjna@

계해 충장로를 문화예술과 상권이 결합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동구관계자는 "시민들은 1970~1980년대에 느꼈던 충장로의 멋과 낭만을 새롭

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거리 공연을 마련해 시민들이 충장로를 자주 찾게 만들어, 도심상권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택배로 배달된 2억 장학금 담양군 '등불 장학금' 명칭 의용소방대원 자녀 대상 내년부터 지급

담양군은 지난달 30일 익명의 기부자가 군에 택배로 보낸 2억원의 장학금(광주일보 7월 31일자 6면)을 '등불장학금'으로 명칭,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1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재)담양장학회 임시 이사회를 갖고 2억원을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내년 상반기부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 2년제나 4년제 대학생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재)담양장학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노정훈기자 cjoh17@

## 초·중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시험 대신 교사 추천 방식으로

광주 등 내년부터

광주시 초·중학교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이 내년부터 시험제 대신 교사 추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영재 선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16개 시도별로 시범 적용 지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시 전체와 서울 동대문구·종로구, 부산 강서구 등 전국 27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시험을 보지 않고 영재교사가 영재성 있는 학생을 관찰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나머지 지역은 종전대로 시험을 거쳐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총 6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개 지역에서 관찰·추천 방식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5천681명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영재교사 연수를 시행해 총 900여명의 영재교사를 양성하고 내년부터 27곳의 초·중학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영재교사들은 학생·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의뢰 등을 통해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험 성적보다는 잠재력 위주로 영재를 발굴할 수 있고 관찰·추천 방식을 통해 그동안 영재 교육에서 소외됐던 '숨어 있는 영재'를 찾을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박진희기자 lucky@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면불안, 불면증, 두통, 피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파,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 허파, 뇌경동, 수축저혈압, 수축성심근증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